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초등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 조사

맹은경
아주대학교

Maeng, Unkyoung. (2009). Perception of primary teachers and students on an English education policy in Korea, TEE. *Modern English Education*, 10(1), 177-2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primary teachers and students on an English education policy of Korea,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TEE).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associations among the variables of teachers (gender, English teaching experience as an English subject teacher or homeroom teacher, oversea training experience) and learners (gender, grade, private tutoring, oversea training/schooling experience). 91 primary teachers and 1351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For the data analysis, multiple response, Crosstabs, and ANOVA were used.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ings; 1) There was an agreement between primary teachers and students in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TEE but a big gap in recognizing the concept of TEE. 2) Both teachers and students recognized the positive effects of TEE and the importance of English proficiency for the success in implementing TEE. 3) Both teachers and students considered a team teaching as an effective way to implement TEE in Korea. 4) The results mentioned above are associated with learners' variables more actively.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TEE)/perception/primary teacher/primary students/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인식/초등교사/초등학생]

I. 서론

국제화, 정보화의 시대를 맞아 국가 및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서 모국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영

어가 이러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세계어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영어구사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는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영어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영어구사 능력 향상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노력 및 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영어교육을 위한 조기 해외유학, 연수, 사교육 지출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영어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황진영, 2006), 지역간·계층간의 영어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삼성연구소, 2006).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어사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능력을 실제적인 환경에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정책과 방안들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6년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프로그램(EPIK, English Program in Korea)을 실시하여 2010년까지 초, 중, 고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2001년부터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TEE,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을 발표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2010년까지 모든 학교현장에서 TEE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교사들에게는 TEE를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영어 마을과 영어 전문방송을 개설하였으며, 공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로 교육인적자원부(교육기술과학부로 개편)는 영어교육혁신 방안을 2006년에 발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그 외에도 방학 중 또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2004년부터 경기도 영어보조교사 프로그램을 통하여(GEPIK, Gyeonggi English Program in Korea) 초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친 영어환경조성,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등과 같이 영어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윤상연, 2009).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현실을 살펴 볼 때, 의사소통 능력향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어입력과 영어사용 기회가 부족하며, 언어습득에 필요한 문화적 요소와 같은 언어외적인 입력이 부족하고,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다. 즉 영어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영어사용 시간을 최대로 확보하여 양질의 언어입력과 언어외적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영어수업을 구성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된 여러 방안들은 초등영어교육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방학 중이나 방과 후의 영어프로그램, 영어마을 활용 및 영어방송 활용은 언어습득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목표 언어 노출시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영어 수업시수를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이며, 원어민 활용방안은 의미 있는 영어 사용과 언어외적인 입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사연수나 원어민 교사 활용방안을 통하여 양질의 언어입력과 다양한 의미 있는 활동중심의 영어수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정책도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으로 인해 영어교육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김신혜, 광병권, 2002; 방영주, 2007; 윤유진, 2008; Oryang Kwon, 2000). 지금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각각의 방안을 분리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효과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연구 대상도 대부분 초등교사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TEE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고려하고,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TEE 교수모형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면, 영어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TEE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수업모형, 원어민 활용 방법, 연수방향 및 프로그램등을 체계적으로 개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을 중심에 두는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TEE에 대한 현황 및 TEE에 대한 초등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TEE 방향을 수정 보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와 학생들이 TEE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성별, 학년/교육경력, 영어수업 유무/사교육 유무, 해외연수나 교육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등교사와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구사 능력이 TEE 수업을 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성별, 학년/교육경력, 영어수업 유무/사교육 유무, 해외연수나 교육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는가?

셋째, 초등교사와 학생들이 TEE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성별, 학년/교육경력, 영어수업 유무/사교육 유무, 해외연수나 교육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는가?

넷째, 초등교사와 학생들은 어떤 형태의 수업이 효과적인 TEE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성별, 학년/교육경력, 영어수업 유무/사교육 유무, 해외연수나 교육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외국어 습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소통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며, 교수방법, 언어입력 및 학습 환경은 의사소통능력 습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Cook, 2001). 따라서 성공적인 외국어 교육은 학습자에게 학습과정에 필요한 최적의 목표 언어 입력을 제공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EFL 환경은 ESL 환경과 달리 이러한 언어입력과 사용의 기회가 대부분 교실활동에서 이루어진다. 교사가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최적의 언어입력과 언어사용 모델을 제시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입력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할 때, 학습자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목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다.

Krashen(1985)은 이해 가능한 언어입력을 충분히 제공할 때 습득이 이루어진다는 입력가설을 주장하였으며, Swain(1985)은 출력가설을 주장하면서 이해 가능한 언어출력이 이해 가능한 입력과 최소한 동일하게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어 습득에서 출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러 연구를(Swain, 1993; Swain & Lapkin, 1995) 통하여 이해 가능한 입력과 출력이 성공적인 외국어 습득에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ong(1985)은 사회 구성주의 견해에서 강조되는 학습자간의 상호작용과 학습자와 교사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그는 상호작용가설을 제시하면서 외국어 습득과정에서의 입력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밖의 연구에서도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Gass, 2003; Gass, Mackey, & Pica, 1998). 이와 같은 연구는 상호작용 활동을 통하여 목표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표 언어 체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또한 입력과 상호작용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활동의 중요성, 즉 교실환경과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EFL 환경에서의 외국어 학습은 이해 가능한 목표 언어입력과 의미 있는 언어사용의 기회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영어수업을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시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공교육 틀 안에서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하고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방안과 더불어 TEE 방안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영어수업시수를 늘리지 않고 현 제도에서 영어 노출시간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의미 있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실환경을 조성하게 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교사가 교실영어를 사용했을 때, 긍정적인 영어학습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Phillipson(1992)은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Atkinson(1993)과 이완기(2000)는 학습자들이 교사가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영어를 학습한다고 하였다. 영어를 수업언어로 사용할 때 학습영역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는 연구(문영인, 이규선, 2002; 이완기, 2000)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정의적인 영역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박상옥, 1996; 이완기, 2000; Rosenthal & Sloanne, 1984). 박상옥(1996)은 영어를 사용하여 영어수업을 한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왔으며, 영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도 TEE를 실시한 경우,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정의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듣기능력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미형, 2007; 김혜영, 2002). 노경희(2000)는 교실영어가 아동들이 영어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상황을 제시하며,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영어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언급하였다.

반면에 목표 언어를 사용하여 외국어 수업을 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한 연구도 있다. 특히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 혹은 수준에 따라 TEE 효과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모국어와 목표 언어를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가르치는 것이 목표 언어습득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Auerbach, 1993; Klassen, 1991). Garcia(1991)는 저학년 외국어 학습자를 가르칠 경우 모국어와 목표 언어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Snow(1990)도 모국어와 목표 언어를 사용하여 어린 학습자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D'Annunzio(1991)는 모국어와 목표 언어를 병행하여 수업한 결과 목표 언어만 사용하여 수업한 경우보다 말하기, 읽기, 어휘영역에서 학습자들이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발표하였으며, Friedlander(1990)는 외국어 쓰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교사와 학습자에게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목표 언어로만 수업을 진행할 경우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 더 부정적인 학습 환경을 초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Gonzales & Maez, 1995). EFL 상황에서 초보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만을 사용하여 수업하는 것보다 필요시 모국어도 같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성연, 2002; Kyung Soon Boo, 1998; Brown, 1994). D'Annunzio(1991)나 Gonzales와 Maez(1995)도 수업시간에 모국어를 사용하여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학습자에게 정의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목표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TEE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즉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업언어로서 모국어와 목표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따라서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TEE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상태와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TEE에 대한 정의를 재정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TEE 정의에 입각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수업모형, 원어민 활용방법, 연수방향 및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TEE에 대한 초등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TEE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91명의 초등교사와 1351명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초등교사 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초등교사 기초자료

성별	(수)	교직경력	(수)	영어전담경력	(수)	담임으로 영어수업 경력	(수)
남	8	5년 미만	15	있다	51	없다	15
		5년-15년	43			있다	36
녀	83	15년 이상	32	없다	40	없다	16
		무응답	1			있다	24
총	91		91		91		91

연구에 참여한 초등교사의 성별을 보면 여자 교사가 83명(91.2%), 남자 교사가 8명(8.8%)으로 여교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참여자 대다수(83.3%)는 5년 이상 교직경력을 갖고 있으며, 영어전담으로서나 담임으로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82.4%). 참여한 교사 중 15명(16.5%)은 영어전담으로서만, 24명(26.4%)은 담임으로서만,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36명(39.6%)은 영어를 영어전담으로 또는 담임으로서 가르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6명(17.6%)만이 영어를 전혀 가르쳐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중 12명(13.2%)만이 해외연수나

해외유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분포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초등학생 기초자료

성별	(수)	학년	(수)	사교육현황	(수)
남	696	3학년	445	없다	366
		4학년	324		
녀	655	5학년	399	있다	981
		6학년	183	무응답	4
계	1351		1351		1351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696명(51.5%), 여학생이 655명(49.5%)으로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이 445명(32.9%), 4학년이 324명(24%), 5학년이 399명(29.5%), 6학년이 183명(13.5%)으로 3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고루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참여한 대다수의 학생(87.5%)이 해외에서 연수를 받거나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으며, 72.8%의 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별히 해외 연수나 유학 경험은 없지만 영어를 초등학교에서 가르쳐 본 경험을 갖고 있는 교사집단과 사교육을 대다수 받고 있는 초등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TEE에 관한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TEE 필요성 및 정의에 관련된 영역, TEE 실천 현황 및 영어구사 능력에 관한 영역, TEE 수업방향에 대한 영역으로 크게 세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초등교사용과 초등학생용을 각각 작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교사용 설문지는 총24문항으로 4단계의 Likert 평점척도로 구성된 강제 선택형 질문 11문항, 자유 반응형 질문 11문항과 개방형 질문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용 설문지는 총 22문항으로 작성되었으며 4단계의 Likert 평점척도로 구성된 선택형 문항 9개, 자유 반응형 문항 13(부분 개방형 포함)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은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 후 수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초등교사와 학생 중에는 모든 설문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소수 있어서 설문 문항에 따라서는 총 응답자 수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숫자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다.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 중 선택형 질문은

이변량분석, 다중응답분석 및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범주화하여 기술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TEE에 대한 교사 인식

1) TEE 필요성 및 정의

TEE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평균이 3.43으로 높게 나왔다(표 3 참조).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 볼 때 89.3%가 TEE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5.2%가 TEE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95.1%가 TEE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교사 변인(성별, 교직경력, 영어전담경험, 담임으로서의 영어교육경험 및 해외 연수 혹은 교육경험)에 따른 TEE 필요성에 대한 평균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TEE 필요성

	1*	2	3	4	무응답
TEE 필요성(M=3.4262, SD=.48902)					
1. TEE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	9 10.7%	33 39.3%	42 50.0%	7
2. TEE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4 4.8%	42 50.0%	38 45.2%	7
3. TEE가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4 4.9%	37 45.1%	41 50.0%	9

* 1: 전혀 아니다, 2: 대체로 아니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위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TEE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TEE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TEE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요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TEE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영어수업시간에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

여 수업을 진행하느냐는 선행연구(고정민, 2008; Sung Ae Kim, 2002)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개인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고정민, 2008; 문영인, 이규선, 2002; Sung Ae Kim, 2002)를 살펴 볼 때, 이러한 차이는 교사 자신과 학생들의 영어능력 수준에 기인한 수업의 비효율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TEE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이 TEE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영어사용 정도에, 더 나아가서는 TEE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45.6%의 교사는 TEE란 영어로만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4.4%는 TEE란 영어와 한국어를 혼합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표 4 참조). 교차분석 결과 교사 변인에 따른 교사들의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초등교사가 동일하게 TEE의 개념을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모국어와 목표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모든 학교 현장에 TEE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결과와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고려하여 TEE 개념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4
TEE 개념에 대한 초등교사 인식

			A**	B	C	D	E
	영어로만 교사중심으로 수업	빈도	1		1	1	1
		%	1.1	1.1	1.1	1.1	1.1
	대부분 영어로 사용하고 가끔씩 한국어 사용하여 교사중심으로 수업	빈도	4	4	4	4	4
		%	4.4	4.4	4.5	4.4	4.4
4.*	영어로만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중심으로 수업	빈도	41	41	41	41	41
		%	45.6	45.6	46.1	45.6	45.6
	영어와 한국어 혼합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 중심으로 수업	빈도	40	40	40	40	40
		%	44.4	44.4	44.9	44.4	44.4
	기타	빈도	4	4	4	4	4
		%	4.4	4.4	4.5	4.4	4.4

* 4.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A: 성별, B: 교육경력, C: 영어전담경력, D: 담임으로서 영어교육경력, E: 해외 연수 혹은 유학경험

2) TEE 실천 현황 및 영어구사 능력

TEE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4단계 Likert 척도로 조사한 결과 2.37로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표 5 참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65.2%) 현장에서 TEE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교사 자신의 영어구사 능력 부족, 학생들의 개인별 수준 차이, 학생들의 학습이해 부족, 과밀학급으로 인한 어려움, 부자연스러운 수업 진행, TEE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TEE 실천 현황, 영어구사 능력, 효과

	1*	2	3	4	무응답
TEE현황					
5. TEE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M=2.37, SD=.545)	-	45 65.2%	22 31.9%	2 2.9%	
TEE영어구사 능력					
7. 자신의 영어구사 능력이 TEE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M=2.47, SD=.640)	-	39 60%	21 32.3%	5 7.7%	26
8. TEE를 진행하는데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M=3.214, SD=.622)	-	9 10.7%	48 57.1%	27 31.1%	7
TEE효과(M=3.06, SD=.459)					
12. TEE 수업시 학생들이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6 18.4%	54 62.1%	17 19.5%	4
13. TEE 수업 시 학생들이 흥미로워합니까?	-	18 20.9%	52 59.3%	17 19.8%	5
14. 한국어로 진행하는 수업보다 TEE로 진행하는 수업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31 38.3%	37 46.3%	12 15.0%	11
15. TEE가 교사의 영어구사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5 17.4%	38 44.2%	33 38.4%	5
16. TEE가 학생들의 영어구사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4 16.3%	41 47.7%	31 36.0%	5

* 1: 전혀 아니다, 2: 대체로 아니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에 충분한 영어사용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의 평균은 2.47로 과반 수 이상의 교사가(60%) 자신들의 영어사용 능력이 TEE수

업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TEE를 진행하는데 대다수의 교사들이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88.2%).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영어 학습 수준이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 수준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사가 자신의 영어사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더라도 TEE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영어수업시간에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30%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3.9%였으며, 30-50%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41%였다. 42.2%가 수업을 시작할 때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6.6%가 게임, 노래, 율동을 할 때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21.1%만이 수업내용과 관련된 설명이나 질문을 할 때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TEE를 진행할 때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50-70%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1.5%), 다음으로 30-50% 정도가 좋다고 응답하였다(22.2%). 반면에 90-100%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는 4.4%로 소수만이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어를 30%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도 13.3%나 되었다.

TEE 효과에 대한 설문 결과 대부분 교사들은 TEE가 대체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M=3.0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의 81.6%가 TEE 수업 시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80.1%는 학생들이 영어수업에 대체적으로 흥미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할 때보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참여도가 더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1.3%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교사가 TEE가 학생들의 영어구사 능력(83.7%)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들의 영어사용 능력(82.6%)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변량 분석 결과 교사 변인에 따라 TEE 실천 현황, TEE 영어구사 능력, TEE 효과에 대한 각각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교사 변인이 TEE의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효과적인 TEE 수업 방향

조사 결과 목표 언어사용 능력 부족 및 교육환경적인 제약과 같은 이유로 TEE가 초등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0년 모든 초등학교 현장에 TEE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려면 교사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TEE 수업방법을 조사하여 TEE 수업 방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함께 진행하는 협동

수업형태로 TEE를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영어능력 발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65%이상의 교사들이 응답하였다. 교차 분석 결과 교사 변인에 따라 나타난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영어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협동수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M=3.3).

표 6

효과적인 TEE 수업 방법

		A**	B	C	D	E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협 동수업형태 (68.1%)	빈도 %	62 68.1	38 76.0	62 68.1	62 68.1	54 67.5
	한국인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한국인 교사의 요청 시 원어민 교사가 가끔 도움을 주는 형태(14.3%)	빈도 %	13 14.3	5 10.0	13 14.3	13 14.3	12 15.0
17.*	원어민 교사 단독으로 수업을 진 행하고 한국인 교사는 참관하는 형태(14.3%)	빈도 %	13 14.3	6 12.0	13 14.3	13 14.3	11 13.8
	원어민 교사 단독으로 수업을 진 행하고 한국인 교사는 전혀 관여 하지 않는 형태(3.3%)	빈도 %	3 3.3	1 2.0	3 3.3	3 3.3	3 3.8

* 17. TEE로 진행되는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는 것이 학생들의 영어능력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A: 성별, B: 교육경력, C: 영어전담경력, D: 담임으로서 영어교육경력, E: 해외 연수 혹은 유학경험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선택하는 항목을 다중응답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소집단활동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영어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56.5%), 다음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형태의 수업 방법을 선택하였다(43.5%).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같이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영어사용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줄 수 있는 소집단 형태의 수업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한 TEE 방법이라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협동수업의 정의 및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Cunningham, 1960; Friend & Reising, 1993). 또한 성공적으로 협동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처해 있는 교육환경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협동수업 유형을 선별하여 수정하고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문화가 서로 다르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영어능력이 부족할 경우,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같이 협의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협동수업 활용에 대한 교사연수와 더불어 자신들이 처한 교육환경에 맞게 다양한 협동수업 형태를 수정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적합한 협동수업의 틀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협동수업을 위한 수업협의 및 분담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과반수에 해당되는 초등 교사들이 협동수업 시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30-50% 정도 분담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30%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50-70%라고 응답한 경우가 그 뒤를 이어서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이 때 한국인 교사가 원어민 교사와 교수-학습과정에 관해 50-70% 정도 협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70-90%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0-50%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와 90-100%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유사한 빈도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위와 같은 응답은 교사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효과적인 협동수업 방법

		A*	B	C	D	E
20. 원어민 교사와 협동수업을 할 때 한국인 교사가 수업을 어느 정도 분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 미만	22 24.4%	21 23.6%	22 24.4%	22 24.4%	21 26.6%
	30-50%	46 51.1%	46 51.7%	46 51.1%	46 51.1%	39 49.4%
	50-70%	21 23.3%	21 23.6%	20 23.3%	21 23.3%	19 24.1%
	70-90%	-	-	-	-	-
	90-100%	1 1.1%	1 1.1%	1 1.1%	1 1.1%	-
23. 협동수업 시 원어민 교사와 어느 정도 협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 미만	9 10.5%	9 10.6%	9 10.5%	9 10.5%	9 10.5%
	30-50%	13 15.1%	13 15.3%	13 15.1%	13 15.1%	13 15.1%
	50-70%	29 33.7%	29 34.1%	29 33.7%	29 33.7%	29 33.7%
	70-90%	23 26.7%	22 25.9%	23 26.75%	23 26.7%	23 26.7%
	90-100%	12 14.0%	12 14.1%	12 14.0%	12 14.0%	-

* A: 성별, B: 교육경력, C: 영어전담경력, D: 담임으로서 영어교육경력, E: 해외 연수 혹은 유학경험

원어민 교사와 협동수업을 할 때 한국인 교사가 어느 정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8과 같다. 한국인 교사가 30-50% 정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30%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50-70%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났다.

표 8

한국인 교사 영어사용 정도

	A**	B	D	E	C		
					있음	없음	전체
30%미만	27 30%	27 30%	27 30%	27 30%	20 32.1%	7 17.9%	27 30%
30-50%	29 32.2%	28 31.5%	29 32.2%	29 32.2%	18 35.3%	11 28.2%	29 32.4%
22.* 50-70%	22 24.4%	20 24.7%	22 24.4%	22 24.4%	11 21.6%	11 28.2%	22 24.4%
70-90%	7 7.8%	7 7.9%	7 7.8%	7 7.8%	2 3.9%	5 12.8%	7 7.8%
90-100%	5 5.6%	5 5.6%	5 5.6%	5 5.6%	0 0%	5 12.8%	5 5.6%
	p>0	p>0	p>0	p>0	χ^2 (df) = 12.863(4) p=.012		

* 22. 원어민 교사와 협동수업을 할 때 한국인 교사가 TEE를 어느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A: 성별, B: 교육경력, C: 영어전담경력, D: 담임으로서 영어교육경력, E: 해외 연수 혹은 유학경험

교차분석 결과 영어전담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어전담경험이 있는 교사는 한국인 교사가 50%미만으로 영어를 사용하여 수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영어전담경험이 없는 교사는 한국인 교사의 영어사용 정도를 30-70%사이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협동수업 시 원어민 교사가 어떤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 순위별로 조사하여 다중응답분석(가중치 사용)을 분석한 결과 말하기(455), 듣기(316), 읽기(212), 문화(163), 쓰기(94), 문법(45)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인 교사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영역으로 쓰기(300), 문법(293), 읽기(177), 듣기(168), 말하기(162), 문화(108)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TEE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을 순위별로 조사하여 다중응답분석(가중치 사용)으로 분석한 결과 교사의 유창한 영어구사 능력(425)이 최우선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국내의 교사 연수 확대 실시(390), 연수를 통한 교수법 훈련 확대 실시(383), TEE 실시에 대한 교사의 확고한 의지(331), 과밀학급 해소(326), TE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학생들의 학습태도(216), 평가방법의 변화(200) 순으로 나타났다.

2. TEE에 대한 초등학생 인식

1) TEE 필요성 및 정의

TEE가 필요한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4단계 Likert척도로 살펴본 결과 평균이 3.36으로 높게 나왔다(표 9 참조). 항목별로 살펴보면 84.8%가 직접적으로 TEE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86.4%가 TEE가 자신의 영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선생님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81%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변량 분석결과 성별, 학년, 사교육 유무에 따라 TEE 필요성에 대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2 참조). 여성(M=3.1)이 남성(M=3.0)보다, 3학년(M=3.18), 4학년(3.08)이 5학년(M=2.92), 6학년(M=3.02)보다, 사교육을 받는 집단(M=3.11)이 받지 않는 집단(M=2.91)보다 TEE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9

TEE 필요성

	1*	2	3	4	무응답
TEE 필요성(M=3.361, SD=.613)					
1. TEE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63 4.7%	141 10.5%	772 57.4%	370 27.4%	5
2. TEE가 자신의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53 3.9%	126 9.4%	785 58.4%	380 28.0%	6
3. 선생님이 TEE수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67 5.0%	189 14.0%	773 57.4%	317 23.6%	5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도움이 안된다/매우 싫다, 2: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도움이 안된다/싫다, 3: 대체로 필요하다/도움이 된다/좋다, 4: 매우 필요하다/도움이 된다/좋다

TEE를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학년, 성별, 해외연수 및 유학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0 참조).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고 가끔씩 한국어를 사용하여 교사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33%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에 남학생(35%)

표 10
TEE 개념에 대한 초등학생 인식

		1	2	3	4	기타	χ^2 (df) p<.05
A**	남	85 (12.2%)	243 (35.0%)	137 (30.6%)	213 (30.6%)	17 (2.4%)	11.758
	여	66 (10.3%)	201 (30.9%)	160 (24.6%)	217 (33.3%)	6 (0.9%)	4
	전체	152 (11.3%)	444 (33.0%)	297 (22.1%)	430 (31.9%)	23 (1.7%)	.019
4.*	3	64 (14.1%)	186 (42.0%)	73 (16.5%)	109 (24.6%)	11 (2.5%)	59.648
	4	35 (10.9%)	111 (34.6%)	69 (21.5%)	101 (31.5%)	5 (1.6%)	
	B 5	37 (9.3%)	108 (27.1%)	105 (26.3%)	143 (35.8%)	6 (1.5%)	12
	6	16 (8.7%)	39 (21.3%)	50 (27.3%)	77 (42.1%)	1 (0.5%)	.000
	전체	152 (11.3%)	444 (33.0%)	297 (22.1%)	430 (31.9%)	23 (1.7%)	
C	받지 않음	33 (9.1%)	126 (34.7%)	80 (22.0%)	117 (32.2%)	7 (1.9%)	2.645
	받고 있음	118 (12.1%)	317 (32.4%)	216 (22.1%)	312 (31.9%)	16 (1.6%)	4
	전체	151 (11.3%)	443 (33.0%)	296 (22.1%)	429 (32.0%)	23 (1.7%)	.619
D	없다	113 (9.7%)	399 (34.1%)	255 (21.8%)	379 (32.4%)	23 (2.0%)	28.197
	있다	38 (22.6%)	45 (26.8%)	37 (22.0%)	48 (28.6%)	0 (0%)	4
	전체	151 (11.3%)	444 (33.2%)	292 (21.8%)	427 (31.9%)	23 (1.7%)	.000

* 4.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영어로만 교사중심으로 수업, 2: 대부분 영어로 사용하고 가끔씩 한국어 사용하여 교사중심으로 수업, 3: 영어로만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중심으로 수업, 4: 영어와 한국어 혼합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중심으로 수업

** A: 성별, B: 학년, C: 영어사교육, D: 해외연수 혹은 유학경험

이 여학생(30.9%)보다 많았으며, 남학생 응답빈도가 여학생 응답빈도보다 더 고르게 여러 TEE 개념 영역에 분포되어 있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이에 해당되는 빈도가 낮아졌다. 영어와 한국어를 혼합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중심으로 수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

다(31.9%). 이 경우에 여학생이(33.3%) 남학생(30.6%)보다 많았으며, 학년이 올라 갈수록 이에 해당되는 빈도가 높아졌다.

해외연수나 유학 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 이 두 개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모두 해외연수나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높았으며, 해외연수나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고르게 여러 TEE 개념 영역에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사교육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초등학교 학생들은 TEE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다양한 형태로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고 가끔씩 한국어를 사용하여 교사중심으로 수업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영어와 한국어를 혼합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중심으로 수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호작용의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사의 인식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0%가 넘는 초등학교사가 TEE란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영어만 사용하여 수업하는 경우보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교사가 TEE란 상호작용 중심의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중심의 수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TEE 실천 현황 및 영어능력

TEE 수업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영어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상, 중, 하로 표시하도록 한 결과 과반수이상의 학생이 자신의 영어실력을 중간정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상 16.4%, 중 63.5%, 하 19%). 실제 TEE 수업시간에 얼마나 영어수업을 이해하고 있는지 4단계 Likert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이 3.13으로 대체로 TEE 수업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3.4%가 선생님이 사용하는 영어가 대체로 이해하기 쉬운 영어라고 응답하였으며, 30.1%는 아주 쉬운 영어라고 응답하였다. 42.5%가 TEE시간에 대체로 수업을 이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9.1%는 거의 모두 이해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변량 분석결과 사교육 유무와 해외연수 및 유학경험에 따른 영어수업 이해도의 평균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12 참조). 사교육을 받고 있는 집단이(M=3.11) 받지 않은 집단(M=2.91)보다, 해외연수 및 유학경험이 있는 집단이(M=3.12) 없는 집단(M=3.05)보다 영어수업의 이해도가 높았다.

영어수업 활동 시 한국어와 영어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 조사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 사교육 유무, 해외연수나 유학경험 유무

에 따라 응답의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59.648$, $p=.000$; $\chi^2=31.773$, $p=.000$; $\chi^2=27.487$, $p=.000$). 영어수업 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영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44.8%). 이처럼 응답한 경우가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에 더 많았다(5학년 53.6%, 6학년 46.6%, 4학년 42.1%, 3학년 38.3%). 영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32%). 모든 활동 시 전부 영어만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해외연수나 유학경험이 있는 학생들이(10.6%)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4.8%) 높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받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응답패턴도 해외 연수 및 유학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응답 패턴과 유사하였다.

표 11

TEE 영어이해능력 및 효과

	1*	2	3	4	무응답
TEE 영어이해능력(M=3.131, SD=.687)과 현황					
8. 선생님이 사용하는 영어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까?	58 4.3%	160 11.9%	717 53.4%	404 30.1%	11
9. 선생님이 영어로 수업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까?	63 4.7%	182 13.7%	565 42.5%	519 39.1%	22
10. 선생님께서 영어수업을 하실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네		아니오		
	906 67.9%		419 31.4		16
TEE 효과(M=2.992, SD=.567)					
11. 한국어로 수업할 때 보다 영어로 수업할 때 더 집중하여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까?	108 8.2%	365 27.5%	676 50.9%	178 13.4%	24
12. TEE 수업 시 자신의 영어실력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51 3.9%	194 14.7%	759 57.4%	318 24.0%	29
13. TEE 수업을 통해서 영어말로 말하는데 전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93 7.0%	284 21.3%	694 52.1%	260 19.5%	20

* 1: 전혀 아니다/거의 이해하기 어렵다, 2: 대체로 아니다/대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3: 대체로 그렇다/대체로 이해 가능하다/, 4: 매우 그렇다/거의 모두 이해한다.

표 12

TEE 필요성, 이해력, 효과 이변량 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도
A(성별)	TEE 필요성	3.767	1	3.767	10.611	.001
	영어이해력	8.018	3	2.673	7.528	.000
B(학년)	영어이해력	2.308	3	.769	2.613	.050
	TEE 효과	3.748	3	1.249	4.377	.004
	협동수업	5.642	3	1.881	4.678	.003
	TEE 필요성	5.012	1	5.012	14.118	.000
C(영어사교육)	영어이해력	10.978	1	10.978	25.272	.000
	TEE 효과	10.983	1	10.987	38.484	.000
	영어이해력	10.551	1	10.551	24.289	.000
D(해외연수/유학)	영어이해력	10.551	1	10.551	24.289	.000
	TEE 효과	4.329	1	4.329	15.167	.000

수업시간 중 어느 때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수업내용과 관련된 발표나 질문을 할 때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0.8%), 다음으로는 노래할 때라고 응답하였다(19.1%). 교차 분석결과 성별, 학년, 사교육 유무에 따라 응답률의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22.950$, $p=.028$; $\chi^2=52.241$, $p=.000$; $\chi^2=2.314$, $p=.000$). 수업시간 중 수업내용에 관련된 발표나 질문할 때, 역할극 할 때, 노래 할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게임할 때나 수업시작과 끝에 인사할 때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3학년, 5학년, 6학년의 경우 수업내용과 관련된 발표나 질문할 때(30%; 29.6%; 37.4%)와 노래할 때(21.1%; 21.0%; 17.3%)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4학년 경우 수업내용과 관련된 발표나 질문할 때(29.6%)와 역할극 할 때(20.6%)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를 많이 사용 할 수 있는 활동이 발표, 질문, 노래를 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인지적인 활동에서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EE에 대한 효과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4단계 Likert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이 2.99로 나타났으며 학년, 사교육 유무, 해외 연수 및 유학 경험 유무에 따른 평균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11, 12 참조). 과반수 이상인 64.3%가 한국어보다 영어로 수업을 할 경우 대체적으로 수업에 더 집중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1.4%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자신의 영어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TEE를 통해서 전보다 영어로 말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1.6%다. TEE 효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 학년은 3학년(M=3.11)이고 그 뒤로 4학년(M=3.0), 6학년(M=2.96), 5학년(M=2.86) 순서로 나타났다. 해외 연수나 유학경험이 있는 집단(M=3.2)이 없는 집단(2.96)보다, 사교육을 받는 집단(M=3.07)이 받지 않는 집단(M=2.76)보다 TEE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EE가 어떤 면에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듣기 능력이 향상(24%)되었고 말하기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고(24.3%)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영어단어를 많이 알게 되었다(22.6%)고 응답하였다. 교차 분석결과 학년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52.656$, $p=.000$). TEE 수업 결과 말하기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언급한 학년 중에서 4학년 빈도(27.5%)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3학년(25.6%), 5학년(23.0%), 6학년(18.0%) 순서로 나타났다. 6학년 경우 듣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21.3%). 영어단어를 많이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빈도는 3학년(26.9%), 4학년(22.8%), 5학년(19.2%), 6학년(19.1%) 순서로 나타났다.

3) 효과적인 TEE 수업 방향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영어수업을 하는 것이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 13과 같다. 한국인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이 협동수업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64.4%, 원어민 선생님 혼자 수업하실 때라고 응답한 경우가 20.1%, 한국인 선생님 혼자 수업하실 때라고 응답한 경우가 14.5%이다. 교차 분석결과 성별, 해외 연수 및 유학경험 유무에 따라 응답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협동수업이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원어민 선생님 단독수업이나 한국인 선생님 단독수업에 응답한 빈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았다. 해외 연수 및 유학경험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협동수업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원어민 단독수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해외 연수나 유학 경험이 있는 집단, 한국인 선생님 단독수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험이 없는 집단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흥미 있는 수업방법과 수업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조사한 결과 두 경우 모두 협동수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6.9%와 55.7%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수업방법으로는 원어민 선생님 단독수업(24%)에, 수업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 방법으로는 한국인 선생님 단독수업(33.5%)에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수업 방법에 대한 응답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수업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응답은 성별과 해외연수 및 유학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협동수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더 흥미롭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의 영역에 응답한 경우 남학생 응답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3학년(61.1%)과 6학년(60.6%)이 4학년(51.6%)과 5학년(54.7%)보다 협동수업이 더 흥미로운 수업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수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연수 및 유학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협동수업(54%)과 원어민 단독수업(22.7%)을,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협동수업(56%)과 한국인 단독수업(35%)을 선택하였다. 협동수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4단계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값이 3.5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변량 분석결과(표 12 참조) 학년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수업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년은 3학년(M=3.66)이며 이어서 4학년(M=3.5), 5학년(M=3.4), 6학년(M=3.2) 순서로 나타났다.

표 13

효과적인 TEE 수업 방법

18.*		한국인 선생님 혼자 수업하실 때	원어민 선생님 혼자 수업하실 때	한국인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이 같이 수업하실 때	χ^2 (df) p<.05
A**	남	119(17.6%)	146(21.5%)	411(60.6%)	10.867
	여	77(11.9%)	125(19.4%)	441(68.4%)	2
	전체	196(14.8%)	271(20.5%)	852(64.4%)	.004
B	3	71(16.2%)	79(29.2%)	286(65.4%)	11.971
	4	59(30.1%)	61(22.5%)	195(61.5%)	
	5	58(24.5%)	89(32.8%)	252(64.6%)	6
	6	18(10.1%)	42(23.5%)	119(66.5%)	.063
	전체	196(14.8%)	271(20.5%)	852(64.4%)	
C	받지 않음	64(18.1%)	64(18.1%)	226(63.8%)	4.590
	받고 있음	132(13.6%)	204(21.1%)	625(64.8%)	2
	전체	196(14.9%)	268(20.3%)	851(64.5%)	.101
D	없다	180(15.6%)	215(18.7%)	753(65.4%)	19.320
	있다	16(9.8%)	54(33.1%)	93(57.1%)	2
	전체	196(1.9%)	269(20.5%)	846(64.3%)	.000

* 18. 어떤 방법으로 영어수업을 하는 것이 영어실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A: 성별, B: 학년, C: 영어사교육, D: 해외연수 혹은 유학경험

19.*		한국인 선생님 혼자 수업하실 때	원어민 선생님 혼자 수업하실 때	한국인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이 같이 수업하실 때	χ^2 (df) p<.05
A**	남	162(23.9%)	165(24.3%)	352(51.8%)	22.301
	여	92(19.2%)	153(23.6%)	402(62.1%)	2
	전체	254(19.2%)	318(24.0%)	754(56.9%)	.000
B	3	88(20.1%)	82(18.8%)	267(61.1%)	20.447
	4	73(23.1%)	80(25.3%)	163(51.6%)	
	5	61(15.5%)	117(29.8%)	215(54.7%)	6
	6	32(17.8%)	39(21.7%)	109(60.6%)	
	전체	254(19.2%)	318(24.0%)	754(56.9%)	.002
C	받지 않음	75(21.7%)	77(21.7%)	203(57.2%)	2.002
	받고 있음	178(18.4%)	239(24.7%)	550(56.9%)	2
	전체	253(19.1%)	316(23.9%)	753(57.0%)	.368
D	없다	226(19.6%)	266(23.0%)	663(57.4%)	5.416
	있다	27(16.6%)	51(31.3%)	85(52.1%)	2
	전체	253(19.2%)	317(24.1%)	748(56.8%)	.067

* 19. 어떤 방법으로 영어수업을 하는 것이 더 재미있나요?

** A: 성별, B: 학년, C: 영어사교육, D: 해외연수 혹은 유학경험

20.*		한국인 선생님 혼자 수업하실 때	원어민 선생님 혼자 수업하실 때	한국인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이 같이 수업하실 때	χ^2 (df) p<.05
A**	남	245(36.8%)	78(11.7%)	342(51.4%)	10.859
	여	191(30.1%)	59(9.3%)	383(60.3%)	2
	전체	436(33.5%)	137(10.5%)	725(55.7%)	.004
B	3	150(34.6%)	38(8.8%)	245(56.5%)	3.669
	4	105(34.7%)	31(10.2%)	167(55.1%)	
	5	127(32.6%)	48(12.3%)	212(54.5%)	6
	6	54(30.9%)	20(11.4%)	101(57.7%)	
	전체	436(33.5%)	137(10.5%)	725(55.7%)	.721
C	받지 않음	118(33.9%)	39(11.2%)	190(54.6%)	.415
	받고 있음	318(33.5%)	96(10.1%)	533(56.2%)	2
	전체	2436(133.6%)	135(10.4%)	723(55.7%)	.812
D	없다	396(35.0%)	99(8.8%)	633(56.0%)	32.215
	있다	38(23.3%)	37(22.7%)	88(54.0%)	2
	전체	434(33.5%)	136(10.5%)	721(55.7%)	.000

* 20. 어떤 방법으로 영어수업을 할 때 영어수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나요?

** A: 성별, B: 학년, C: 영어사교육, D: 해외연수 혹은 유학경험

협동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영어로 수업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효과적인 협동수업 방법

15.*		30%미만	30-50%	50%	50-70%	70-100%	100%	$\chi^2(df)$ p<.05
A**	남	72 10.5%	87 12.7%	169 24.7%	149 21.8%	163 23.8%	45 6.6%	12.857
	여	40 6.2%	69 10.6%	194 29.9%	144 22.1%	165 25.4%	37 5.7%	5
	전체	112 8.4%	156 11.7%	363 27.2%	293 22.0%	328 24.6%	82 6.1%	.025
B	3	46 10.4%	47 10.7%	117 26.5%	72 16.3%	114 25.9%	45 10.2%	48.508
	4	22 26.9%	31 9.7%	95 26.7%	75 23.4%	76 23.8%	21 6.6%	
	5	34 8.6%	54 13.7%	99 25.1%	110 27.9%	86 21.8%	11 2.8%	15
	6	10 5.6%	24 13.4%	52 29.1%	36 20.1%	52 29.1%	5 2.8%	.000
	전체	112 8.4%	156 11.7%	363 27.2%	293 22.0%	328 24.6%	82 6.1%	
C	받지 않음	53 14.8%	49 13.7%	116 32.4%	66 16.8%	60 16.8%	14 3.9%	49.408
	받고 있음	59 6.1%	105 10.8%	247 25.4%	227 23.3%	267 27.4%	68 7.0%	5
	전체	112 8.4%	154 11.6%	363 27.3%	293 22.0%	327 24.6%	82 6.2%	.000
D	없다	101 8.7%	136 11.7%	329 28.3%	267 22.9%	272 23.4%	59 5.1%	34.034
	있다	10 6.2%	19 11.7%	32 19.8%	24 14.8%	54 33.3%	23 14.2%	5
	전체	111 8.4%	155 11.7%	361 27.2%	291 21.9%	326 24.6%	82 6.2%	.000

* 15. 영어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어느 정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A: 성별, B: 학년, C: 영어사교육, D: 해외연수 혹은 유학경험

영어를 50%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4.6%가 영어를 70-90%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

하였다. 학생들의 성별, 학년, 사교육 여부에 따라 영어사용 정도에 대한 응답의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영어를 50-70% 정도 범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그 외의 범주를 선택한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많았다. 3학년과 6학년의 경우는 50% 정도와 70-90% 정도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4학년과 5학년의 경우 50%- 90%에 해당되는 범주에 응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은 50% 정도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응답은 50%-90%에 해당되는 범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해외연수 및 유학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다수가 영어를 70-90%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반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50% 정도에서 90%에 이르기 까지 고르게 응답이 분포되어 있다.

TEE 수업 시 선생님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7.9%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년이 올라 갈수록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해외 연수 및 유학경험이 없는 학생들(70.7%)과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학생들(75.3%)이 해외연수 및 유학경험이 있는 학생들(50.9%)과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65.8%)보다 더 많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TEE에서 선생님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이유로 “영어만 사용하면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서 답답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영어만 사용하다가 가끔 한국어를 사용하면 더 흥미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세 번째 이유로 “수업 중에 영어만 사용하면 조금 불안하므로 가끔 한국어를 사용해 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끝으로 협동수업 시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문항 21)과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문항 22)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원어민 교사가 가르칠 경우 더 도움이 된다고 선택한 영역별 빈도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화, 문법 순서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교사에 해당되는 응답 비율은 말하기, 듣기, 쓰기, 문법, 읽기, 문화의 순서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학년별(문항 21, $\chi^2=50.459$ $p=.000$; 문항 22, $\chi^2=99.490$ $p=.000$), 사교육 유무(문항 21, $\chi^2=18.620$ $p=.002$; 문항 22, $\chi^2=32.392$ $p=.000$)에 따른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영역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말하기가 모든 학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 특히 4학년의 선택 비율이 다른 학년보다 높았다. 듣기영역의 선택 비율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증가되는 반면, 쓰기영역의 선택 비율은 감소되었다. 읽기영역에서는 6학년의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나 문법

영역에서는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상대적으로 문화 영역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듣기와 문화영역에서만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선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다른 영역에서는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빈도가 더 높았다.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선택한 영역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듣기영역의 선택 비율은 위에서 언급한 원어민 교사경우와 반대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낮아졌으나, 문법영역 선택 비율은 높아졌다. 3, 4, 5학년 경우 여전히 말하기영역의 빈도가 높았으나 6학년 경우 문법영역의 선택 비율이 다른 영역의 선택 비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선택비율은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만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문법영역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선택 빈도가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선택비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TEE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TEE의 필요성 및 정의, TEE 현황 및 영어사용능력, 효과적인 TEE 수업방향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특정 정책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교사와 학습자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TEE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교사 95.2%, 학생 86.4%) TEE가 영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TEE 개념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초등교사의 경우 TEE를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학생들은 TEE란 영어를 사용하고 가끔씩 한국어를 사용하여 교사중심으로 수업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장에서 초등 교사들이 TEE 수업 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전히 교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EE 필요성 및 정의에 대한 이러한 인식 결과는 교사 변인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학생 변인인 성별, 학년, 사교육 유무에 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공적으로 TEE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목표 언어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때에 따라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환경

에 적합한 TEE 개념을 제시하고, 모국어와 목표 언어의 사용 정도에 따라 다양한 TEE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의사소통 중심의 다양한 수업방법을 개발하고 교사연수를 통하여 이를 교육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생 변인 특히, 성별, 학년, 사교육 유무를 고려하여 다양한 TEE 모형을 교사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들은 TEE가 현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M=2.37) 자신들의 영어구사 능력이 TEE를 실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M=2.47). 그 외에도 학생들의 개인별 수준 차, 학생들의 학습이해도 부족 등으로 TEE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다수의 교사가(74.9%) TEE 진행 시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50%미만), 수업을 시작할 때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게임, 노래, 율동과 같은 활동을 할 때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TEE가 대체로 효과가 있다(M=3.06)고 인식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과반수이상(63.5%) 자신의 영어실력을 중간 정도로 인식하였다. 학생들은 현재 실시되는 TEE 수업내용을 대체로 이해(M=3.14)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수업시간에 한국어를 영어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영어는 주로 발표, 질문, 노래를 할 때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TEE 효과에 대해서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자신의 영어실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말하기에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변인이 TEE 효과나 영어구사 능력, 영어사용 정도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학생 변인은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위와 같은 결과는 첫째, 교실영어에 초점을 맞추고 교사의 교실영어 사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를 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교사 연수를 통하여 TEE 모의 수업 및 연습 기회를 제공하여 TEE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교사 연수나 워크숍을 통하여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질문기법과 같은 교수기법을 전수하고 이에 대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학습자의 수업이해도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학생 변인을 고려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활동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다수의 교사는 원어민 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같이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영어사용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줄 수 있는 소그룹중심의 수업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바람직한 TEE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협동수업 시 한국인 선생님이 영어를 최소 30% 이상 최대 70% 정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때 교사 변인 중 영어전담 경험이 이와 같은 영어사용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원어민 교사는 주로 말하기, 듣기, 읽기, 문화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한국인 교사는 쓰기, 문법, 읽기, 듣기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의 경우도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흥미도 유지되고, 이해도 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TEE 방법으로 협동수업을 다수가 언급하였으며 협동수업 시 한국인 교사가 50-90% 정도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인식에도 역시 학생 변인이 영향을 주었다. TEE 수업 시 다수의 학생들이 한국인 교사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사의 견해와 달리 학생들은 한국인 교사나 원어민 교사 모두 우선적으로 말하기, 듣기영역을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때 학생 변인 중, 학년과 사교육 여부가 영역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위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협동수업의 정의 및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Cunningham, 1960; Friend & Reising, 1993) 설문결과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협동수업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공적으로 협동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처해 있는 교육환경과 학생 변인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유형을 선별하여 수정·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협동수업 활용에 대한 교사연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TEE 정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국어 사용과 관련하여 TEE의 개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개념의 틀 안에서 학생들의 변인을 고려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협동수업 모형을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효율적인 TEE 정책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정민. (2008). 교수방법과 TETE수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중학교 영어교육.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5(1), 338-407.

교육인적자원부. (2005).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민의 영어 역량 제고를 위한 영어교육 혁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참고 자료집.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2007). *참여정부의 방과후학교 성과보고*.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부.

- 김미형. (2007). 원어수업이 학업성취도와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영어교육*, 13(2), 143-166.
- 김성연. (2002).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태도. *초등영어교육*, 8(2), 5-30.
- 김신혜, 광병권. (2002). 원어민 교사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Foreign Languages Education*, 9(3), 211-241.
- 김혜영. (2002). *Classroom English의 활용을 통한 영어 듣기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현장연구논문.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청.
- 노경희. (2000). Primary English teaching by principles of second language. *초등영어교육*, 6(1), 5-29.
- 문영인, 이규선. (2002).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관한 중학교 영어 교사들의 인식 조사. *영어교육연구*, 14(2), 299-324.
- 박상옥. (1996). 영어교육에서 교실 영어사용의 효과. *영어교육*, 51(1), 3-21.
- 방영주. (2007). 효율적인 원어민 영어교사 자질에 대한 인식. *현대영어교육*, 8(3), 341-365.
- 삼성연구소. (2006). *영어의 경제학*. 서울: 삼성연구소.
- 윤상연. (2009, 1월 1일). 경기교육청, '교내미니영어마을'영어사용강화. 뉴스/스. 월드와이드웹: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metro/view.html?cateid=100005&newsid=20090101134011295&p=newsis>에서 2009년 1월 1일 검색했음.
- 윤유진. (2008). 영어 원어민 강사 운영 실태 및 직무 만족도 연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9(3), 152-188.
- 이완기. (2000). *초등영어교육론*. 서울: 문진미디어.
- 황진영. (2006, 10월 21일). 대졸 입사자 영어회화 낙제점. *동아일보*, p. 13A.
- Atkinson, D. (1993). *Teaching monolingual classes*. London: Longman
- Auerbach, E. (1993). Reexamining English only in the ESL classroom. *TESOL Quarterly*, 27(1), 9-32.
- Boo, Kyung-Soon. (1998). Classroom language in teaching English. *Journal of the applied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14(1), 23-42.
- Brown, H. D. (1994). *Teaching by principl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ook, V. (2001). Using the first language in the classroom.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7(3), 402-423.
- Cunningham, L. (1960). Team teaching: Where do we stand? *Administrator's Notebook*, 8, 1-4.
- D'Annunzio, A. (1991). Using bilingual tutors and non-directive approaches in

- ESL: A follow-up report. *Connections: A Journal of Adult Literacy*, 4, 51-52.
- Friedlander, A. (1990). Composing in English: Effects of a first language on writing in English in a second language. In B. Kroll (Ed.), *Second language writing* (pp. 109-12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end, M., & Reising, M. (1993). Co-teaching: An overview of ten past, a glimpse at the present, and considerations for the future. *Preventing School Failure*, 37(4), 6-11.
- Garcia, E. (1991). *Education of linguistically and culturally diverse students: Effective instructional practices*. Santa Cruz, CA: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Cultural Diversit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 Gass, S. (2003). Input and interaction. In C. Doughty & M. Long (Eds.), *The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224-255). Malden MA: Blackwell.
- Gass, S., Mackey, A., & Pica, T. (1998). The role of input and interac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odern Language Journal*, 82, 299-307.
- Gonzales, G., & Maez, L. (1995). Advances in research in bilingual education. *Directions in language & education*, 1(5). Washington D.C.: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learinghouse for Bilingual Education.
- Kim, Sung Ae. (2002).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Teacher English through English' classes in the Korean context. *English Teaching*, 57(4), 315-346.
- Klassen, C. (1991). Bilingual written language use by low-education Latin American new comers. In D. Barton & R. Ivanic (Eds.), *Writing in the community* (pp. 38-57). London: Sage.
- Krashen, S.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 New York: Longman.
- Kwon, Oryang. (2000). Korea's English education policy changes in the 1990s: Innovations to gear the nation for the 21st century. *English Teaching* 55(1), 47-91.
- Long, M. (1985). Inpu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S. Gass & C.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377-393). Rowley: Newbury.
- Phillipson, R. (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nthal, A., & Sloanne, R. (1984). A communicative approach to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The UMBC project. *Foreign Language Annals*, 20, 245-253.
- Snow, C. (1990). Rationales for native language instruction: Evidence from

- research. In A. Padilla, H. Firchild, & C. Valadez (Eds.), *Bilingual education: Issues and strategies* (pp. 60-74). Newbury Park, CA: Sage.
- Swain, M. (1985). Communicative competence: Some roles of comprehensible input and comprehensible output in its development. In S. Gass & C.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235-253). Rowley, MA: Newbury.
- Swain, M. (1993). The output hypothesis: Just speaking and writing aren't enough.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0, 158-164.
- Swain, M., & Lapkin, S. (1995). Problems in output and the cognitive processes they generate: A step towards second language learning. *Applied Linguistics*, 16, 371-391.

맹은경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Tel: (031) 219-1883/ H.P.: 010-3244-5329
Email: my5329@ajou.ac.kr

Received 16 February 2009

Reviewed 1 March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5 April 2009